

칼륨계 화학제품 생산 세계 1위·국내시장 점유율 90%

‘독점 지위 매력’ 유니드 ... “숨은 저평가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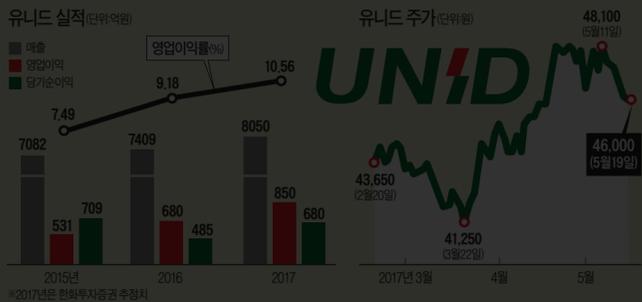
유니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칼륨계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세계 칼륨계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 1위(25%) 업체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로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이 회사 주가는 장기간 4만원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높은 시장 지배력과 안정적인 실적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간 주가 4만원대에 머물러 유니드는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00원(0.22%) 떨어진 4만6000원에 마감했다. 급락세는 아니지만 12일부터 약보합세를 보이며 6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이 회사 주가는 2013년 8월 4만원대를 넘어선 이후 4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다. 한때 5만원대로 올라선 적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꾸준한 외형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감안하면 주가가 장기권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도달하면서 유니드가 ‘숨은 저평가주’로 주목받고 있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유니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주당순자산)은 0.65배로 1배에 훨씬 못 미친다. 회사 자산을 다 팔고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주가 수익비율(PER-주가/주당순이익)도 8.20배로 비슷한 업종(11.40배)에 비해 낮다.

유니드 개요

설립	1980년 5월
상장	2004년 12월
주요사업	화학(가성칼륨, 탄산칼륨 등)·보드(복재 제품)·LED(사파이어 잉곳, 웨이퍼)
주요주주	OIC상사 25.06% 이화영 회장 9.34%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6.79%
시가총액	4089억원 (유가증권시장 302위)



주가순자산비율 0.65배
청산가치보다 주가 훨씬 낮아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실적 우상향

설비 증설·M&A 통해
성장동력 추가 확보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견실한 실적과 안정적인 지위를 앞세운 안정적인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다. 유니드의 주요 사업은 화학(가성칼륨, 탄산칼륨 등)과 보드(복재 제품)부분으로 나뉜다. 화학사업 매출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고성 칼륨은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 세정제, 세제 등에 쓰인다. 탄산칼륨은 광학유리, 농약, 의약품 등에 활용된다. 유니드 매출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

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80억원으로 전년보다 28.06% 증가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9.18%에 달했다. 원료인 염화칼륨 가격 하락 덕이었다. 올 1분기 실적도 좋았다. 이 회사는 1분기에 17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보다 20.56% 늘어난 액수다. 순이익은 126억원으로 255.38% 급증했다.

정홍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칼륨계 화학제품의 수요는 안정적”이라며 “유니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만큼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인수 올해는 안정성에 성장성도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니드는 지난해 한화 케미칼 울산공장을 인수했다. 유니드는 기존 인천공장을 울산으로 옮기면서 라인도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칼륨계 화학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증설과 공정 효율화 작업에

힘입어 화학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인천공장 부지 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매각 대금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김태운 유니드 IR(기업실명담당) 차장은 “공장 이전 작업과 함께 울산공장 증설도 하고 있다”며 “기존 인천공장 부지는 매각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인수 합병(M&A)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올 1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니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1063억원에 이르렀다. 유니드는 지난해 동양메치(현 SK 메치) 인수전에 뛰어든 적도 있었다. 이화영 유니드 회장의 사위인 한상준 전략기획 본부장(부사장)의 주도로 M&A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드의 개인 최대주주 9.34%인 이 회장은 이수영 OCI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국내 큰손들, 하반기 투자 계획 살펴보니

“헤지펀드보다 사모대출펀드”

‘ASK 서밋’ 참가 기관 설문

국민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삼성생명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올해 사모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대출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직접 빌려주거나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지난 17-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17 사모·헤지펀드 서밋’에 참가한 20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17개 기관이 “올해 사모대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3곳은 “기존 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기관들은 안정적으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모대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공제회 관계자는 “사모대출은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변동성 리스크가 낮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관들은 사모대출 투자 전략(복수응답)

답)으로 ‘직접 대출’ 방식(16곳)을 가장 선호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메지닝’ 전략(14곳),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부실채권 투자’ 전략(3곳)이 뒤를 이었다.

사모주식 투자에 대한 기관 12곳이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유지’ 답변은 7곳, ‘축소’ 답변은 1곳이었다. 기관들이 선호하는 사모주식 투자 펀드의 전략(복수응답)은 ‘바이아웃(경영권 매매)’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투자’가 9곳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기관들은 헤지펀드 투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관은 5곳에 그쳤다. “중성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기관은 7곳이었다. “비중을 줄이겠다”는 곳과 “투자 계획이 없다”는 기관도 각각 4곳이었다.

기관들은 다양한 대체투자 투자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교직원공제회는 ‘폐기물 처리업체’, 국민연금과 지방행정공제회는 ‘삼림 및 농지’를 각각 관심있는 대체투자 영역으로 꼽았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과 지방행정공제회는 ‘선박펀드’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5월21일 오후 3시51분

한화케미칼 회사채 ‘홍행몰이’

500억 모집에 4720억 ... 9배 몰려

한화케미칼이 발행할 회사채에 모집금액의 아홉 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 케미칼이 3년 만기 회사채 5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18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에 총 4720억원의 매수주문이 들어왔다.

한화케미칼은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발행금액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금리도 시가평가 대비 0.4~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 2.26~2.36% 수준이다.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이 기관들의 관심을 불러왔다. 이 회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96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7.7% 늘어났다.

신용도가 개선된 것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5일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실적 호조·손자회사 상장 기대 ... LS의 ‘이유있는 반동’

이달에만 주가 11% 상승

LS그룹의 지주회사 LS가 사업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와 유망 손자회사 상장 기대에 힘입어 오름세를 타고 있다. LS는 비상장사인 LS전선 LS엘트론 LS니코동체련과 상장사(유가증권시장)인 LS산전 등을 지회사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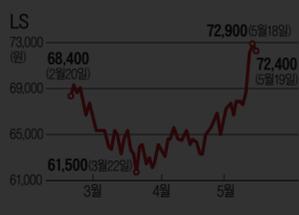
LS는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7만2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들어 11.0%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회

사는 올 1분기에 15%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증권가의 추정치 평균(컨센서스)을 40%나 웃도는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이었다.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이유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선 수요가 많아진 덕분이다. 전선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구리값도 지난해 4분기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최근 국제 구리값은 1년 55%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올랐다. 구리 가격의 강세는 전선 및 동체련 계열사(LS니코동체련)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권가에서는 자회사인 LS전선과 손자회사인 슈퍼어에세스의 실적 개선에도 주목하고 있다. LS전선은 2008년 미국의 전선업체인 슈퍼어에세스를 인수했다. 슈퍼어에세스는 이후 수년간 적자를 내며 LS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 3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흑자’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오는 7월에는 LS엘트론의 자회사 LS 오토모티브가 상장할 예정이다. LS오토모티브는 자동차용 스위치 및 릴레이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다. 지난해 전년보다 88% 늘어난 41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대한민국 유일 글로벌 부동산 축제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최강 국제 부동산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

2017. 8. 17(목) - 19(토) 서울 코엑스(COEX) Hall D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 어젠다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미래 비전”

“지금 신청하십시오!” 1차 신청 마감 임박!

국내·외 시행사·건설사·분양업체·지자체·공기업 등의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가업체문의 (02)360-4311-4 | 참관문의 (02)360-4262-3 | www.cityscapekorea.co.kr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

주최 | 한국경제신문 | 후원 | 한국부동산연구소 | Informa | 주관 | PLATFORM HOLDINGS | GURU